

# 風寒喘에 應用된 麻黃散의 文獻的 考察

沈益鉉 · 金聖炫 · 林逸圭 · 韓相桓

## I. 緒 論

麻黃散은 元代 危亦林<sup>(1)</sup>의 《世醫得效方》(西紀 1337年)에 처음 收錄된 處方으로 陳<sup>(2)</sup>, 方<sup>(3)</sup>, 許<sup>(4)</sup>, 姜<sup>(5)</sup>, 李<sup>(6)</sup>, 尹<sup>(7)</sup> 등에 依하여 風寒喘의 治療에 應用되었다.

麻黃散의 構成藥物은 麻黃, 桂皮, 款冬花, 訶子皮, 甘草, 杏仁, 細茶로 構成되어 있으며, 文獻에 따라서 風寒喘에 使用되는 麻黃散 構成藥物의 內容 및 그 用量에 있어서도 若干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喘症의 定義를 살펴보면 “形寒飲冷으로 因하여 肺가 受傷되거나, 或은 氣가 火鬱로 因하여 稠痰을 凝結시켜 肺胃에 侵入하면, 氣가 逆上하여 氣息이 促急해지므로 혈떡거리고 呼吸이 頻數하여, 입을 벌리고, 어깨를 들먹거리게 되며(張口擡肩), 身體와 肚腹을 動搖하는(搖身擡肚) 것이 喘이다.”<sup>(6),(29)</sup> 고 하였다.

風寒喘의 原因은 “尋常感冒 風寒內鬱 肺脹逆”<sup>(4),(6),(12),(13),(29)</sup> 이라 하였으며, “發熱不甚 惡風惡寒 無汗 鼻流清涕 頭痛身痛 呼吸急促 喉中喘鳴”<sup>(6)</sup> 등의 症狀을 나타낸다.

麻黃散의 主治證은 “傷風 喘急痰壅 涕唾稠粘”<sup>(4)</sup> 이다.

風寒喘에 對한 處方은 그 外 多數가 있으나 著者는 麻黃散에 對한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本方을 臨床應用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麻黃散의 各 醫書에 따른 主治證 및 病理機轉과 處方 分析, 藥物의 性味, 歸經, 效能, 藥

物用量 變化의 差異 등을 文獻을 통하여 研究檢討 한 缺課 몇 가지 知見을 얻었으므로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研究 資料 및 方法

#### (1) 研究 資料

《世醫得效方》<sup>(1)</sup>以後 現代에 이르기까지의 醫書中에 麻黃散과 風寒喘이 收錄되어 있는 古今의 文獻을 選定하여 研究對象으로 삼았다.

#### (2) 研究 方法

1) 麻黃散의 構成藥物들에 對한 各 本草 文獻을 通하여 歸經, 性味, 效能을 分類, 調査하여 圖表로 整理하였다.

2) 各 醫書에 따른 藥物의 用量 差異를 資料 收集하여 圖表로 整理하였다.

3) 各 醫書에 따른 麻黃散의 主治證을 拔萃 分類하여 圖表로 整理하였다.

### 2. 研究 內容

#### (1) 構成藥物 및 效能

麻黃散의 構成藥物 및 效能의 分類를 辛<sup>(17),(21),(22),(24)</sup>, 陸<sup>(19),(20)</sup>, 李<sup>(18)</sup>, 申<sup>(23)</sup> 等에 依據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藥名	性	味	歸經	效能
麻黃	溫無毒	辛苦	肺 膀胱 心 大腸	發汗解表 定喘止咳 宣肺平喘 辛溫解表 痰哮喘 惡寒無汗
桂皮	溫無毒	辛	脾 肝	補中益氣 除心脇痛 溫筋通脈 溫中補陽 散寒止痛 去痛風 利關節 上氣咳逆結氣
款冬花	溫無毒	辛甘	肺	潤肺消痰 除煩定喘 喉痺喉痞 肺痿肺癰 咳吐膿血 咳逆上氣 喘渴
訶子皮	溫無毒	苦酸	肺 大腸	斂肺收脫 除脹滿 利咽喉 通津液 痰嗽喘急 膈氣嘔逆
甘草	平無毒	甘	肝 脾 肺 (十二經)	補脾益氣 清熱解毒 清肺止咳 調和諸藥 解百藥毒 通行十二經
杏仁	溫有小毒	辛苦	肺 大腸	潤肺止咳 定喘止咳 潤腸通便 除風散寒 行痰解肌 煩氣喘促
細茶	溫無毒	苦甘	心 肺 胃	清熱降火 解毒止痢 清心利尿
桂心	溫無毒	甘辛	肝 腎	消瘀生肌 補虛寒 宣氣血 治風痺癱瘓
五味子	溫無毒	酸	肺 腎	斂肺滋腎 生津斂汗 澀精止瀉
麥門冬	寒無毒	甘微苦	心 肺 胃	滋陰清熱 潤肺生津 強心利尿
細辛	溫無毒	辛	肺 腎	發散風寒 祛風止痛 溫肺化痰
紫蘇子	溫無毒	辛	肺 大腸	降氣消痰 平喘潤腸 咳嗽氣喘
馬兜鈴	寒無毒	苦	肺	清肺止咳 降氣平喘
阿膠	平無毒	甘	肺 肝 腎	補血止血 安胎 滋陰潤燥
乾薑	熱無毒	辛	肺 脾 腎	溫中廻陽 溫肺化痰 溫經止血

(2) 各 醫書에 따른 藥物의 用量變化

藥 名	世醫得 效方	太平惠民 和劑局方	奇效良方	東醫寶鑑	東醫臨 床內科	東醫肺系 內科學	東醫臨床 方劑學	備急 千金要方	聖濟總錄
麻 黃	10 兩	10 兩	4 錢	2 錢	8 g	7.50 g	2 錢	半斤	半斤
肉 桂 (桂皮)	6 兩	6 兩	2錢4分	1錢2分	5 g	4.50 g	1錢2分		
款冬花	2 兩	5 兩	3 錢	2 錢	4 g	3.75 g	1 錢		
訶子皮 (肉)	5 兩	5 兩	2 錢	1 錢	4 g	3.75 g	1 錢		
甘 草	5 兩	5 兩	1 錢	1 錢	4 g	3.75 g	1 錢	3 兩	3 兩
杏 仁	3 兩	3 兩	1 錢半	6 分	2 g	2.25 g	6 分	100 枚	100 枚
細 茶				1 錢	4 g	3.75 g	1 錢		
桂 心								1 兩	1 兩
五味子									
麥門冬									
細 辛									
紫蘇子									
馬兜鈴									
阿 膠									
乾 薑									

藥名	太平聖惠方			醫方類聚		
麻黃	1兩	2兩	1兩	10兩	半斤	1兩
肉桂(桂皮)				6兩		
款冬花				5兩		
訶子皮(肉)	1兩半			5兩		
甘草	半兩	1兩	半兩	5兩	3兩	半兩
杏仁	1兩	1兩	1兩	3兩	100枚	1兩
細茶						
桂心	半兩	1兩			1兩	
五味子	3分					
麥門冬	1兩					
細辛	半兩	1兩				
紫蘇子	半兩					
馬兜鈴		1兩				
阿膠			1兩			1兩
乾薑			3分			7錢5分

(3) 麻黃散의 文獻別 主治證

書名	主治證
世醫得效方 奇效良方	治傷風喘急坐臥不安痰涎壅塞涕唾稠粘手足冷痺
太平惠民 和劑局方 醫方類聚	治丈夫婦人久近肺氣咳嗽喘急上衝坐臥不安痰涎壅塞欬唾稠粘脚手冷痺心脇疼脹兼治傷風咳嗽膈上不快
東醫寶鑑 東醫肺系內科學 東醫臨床方劑學	治傷風喘急痰壅涕唾稠粘
東醫臨床內科	治風寒喘粘稠鼻汁發汗症狀
備急千金要方 聖濟總錄 醫方類聚	主上氣嗽方

III. 考 察

喘證은 呼吸器系 疾患에 있어서 主要 症候로써 起源은 B.C 2~3 世紀頃에 쓰여진 《黃帝內經》<sup>14,15</sup>의 各篇에 언급된 後로 始作되었다. 《素問·調經論篇》<sup>16</sup>에 “氣有餘則喘咳上氣不足則息利少氣”라 하였고 《素問·臟氣法時論篇》<sup>17</sup>에 “肺病者喘咳逆氣”라 하였으며 《靈樞·五閱五使篇》<sup>18</sup>에 “肺病者喘息鼻張”이라 하여 喘證에 對하여 처음으로 言及한 이래 喘證은 흔히 볼 수 있는 呼吸器 疾患의 하나로 認識되어 왔다.

喘證의 原因은 “대개 外因으로 五運六氣의 太過不及에 依하여 喘證이 發하고, 六淫中 風, 寒, 暑, 熱, 燥가 主로 關與하고 內因으로 는 勞倦傷中 勞力過度, 七情中 驚恐, 飲食傷과 不內外因으로 誤刺, 墜傷에 依하여 喘證이 發하고, 喘證을 發하는 臟器로는 肺, 腎, 心, 胃가 重要하게 關係한다.”<sup>19,20</sup>고 하였다.

許浚의 《東醫寶鑑》<sup>21</sup>에서는 “喘證을 風寒喘, 痰喘, 火喘, 水喘, 久喘, 胃虛喘, 陰虛喘”等 8種으로 分類하였는데, 風寒喘은 “尋傷感冒 風寒內鬱 肺脈逆”<sup>22,23,24</sup>하여 發病하며, “惡風惡寒 發熱不甚 無汗 鼻流清涕 頭痛身痛 呼吸急促 喉中喘鳴”<sup>25</sup> 등의 症狀을 나타낸다. 風寒喘에 使用되는 麻黃散은 “治傷風喘急 痰涎壅塞 涕唾稠粘 坐臥不安 手足冷痺”<sup>26,27</sup>하는 處方이다.

麻黃散은 《世醫得效方》<sup>28</sup>에 처음 收錄되었는데 《世醫得效方》<sup>28</sup>, 《太平惠民和劑局方》<sup>29</sup>, 《奇效良方》<sup>30</sup>, 《醫方類聚》<sup>31</sup> 등에 있어서의 構成藥物은 麻黃, 肉桂(桂皮), 款冬花, 訶子皮(肉), 甘草, 杏仁 등으로 이루어진 반면, 《東醫寶鑑》<sup>32</sup>, 《東醫臨床內科》<sup>33</sup>, 《東醫肺系內科學》<sup>34</sup>, 《東醫臨床方劑學》<sup>35</sup>에서는 細茶가 加하여졌으며, 《備急千金要方》<sup>36</sup>, 《太平聖惠方》<sup>37</sup>, 《醫方類聚》<sup>38</sup>, 《聖濟總錄》<sup>39</sup> 등에 收錄된 麻黃散은 風寒喘을 다스리는 麻黃散과는 同名異方임을 알 수 있다.

麻黃, 肉桂(桂皮), 款冬花, 訶子皮(肉), 甘草, 杏仁, 細茶 등으로 이루어 構成되어진 麻黃散의 構成藥物의 效能을 살펴 보면 “麻黃은 發汗解表 宜肺平喘의 效能이 있어 感冒風寒으로 因한 惡寒發熱 無汗 諸關節疼痛 皮膚의 排泄機能 障礙에 依한 呼吸困難 咳嗽喘息等, 桂皮는 溫中補陽 散寒止痛의 效能이 있어 血液循環을 促進시키고 腹部冷痛 貧血體溫低下 四肢冷感等, 款冬花는 潤肺降氣 化痰止咳의 效能이 있어 外感咳嗽 虛勞咳嗽 咳嗽氣急 肺癰 咳吐膿血等, 訶子皮는 澀腸止瀉 斂肺止咳 등의 效能이 있어 久瀉 久痢 脫

肛久咳失音盜汗虛喘肺結核等, 甘草는 補脾益氣 清熱解毒 潤肺止咳 調和諸藥 等の 效能이 있어 脾胃虛弱 瘡瘍腫毒 咳嗽 喘息 等, 杏仁은 止咳定喘 潤腸通便 等の 效能이 있어 發熱咳嗽 氣逆喘促 大腸燥結 等, 細茶는 清熱降火 解毒止痢 清心利尿 等の 效能이 있어 傷風으로 因한 頭痛 鼻塞 急慢性的 瀉痢 血痢 等を 治한다.”<sup>(17)-(24)</sup> 고 하였다.

麻黃散의 構成藥物의 性을 보면 麻黃, 肉桂(桂皮), 款冬花, 訶子皮(肉), 杏仁은 溫하며 甘草는 平하며 細茶는 凉하다. 味는 麻黃, 杏仁은 辛苦하며, 肉桂(桂皮)는 辛하며, 款冬花는 甘辛하며 訶子皮(肉)은 苦酸하며 細茶는 苦甘하며 甘草는 甘하다. 따라서 麻黃散은 主로 性은 溫하고 味는 辛, 苦, 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溫性을 가지는 藥物은 흔히 溫陽, 救逆, 散寒 等の 作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통 陰證, 寒證에 應用되며, 辛味는 能散, 能行하는 作用이 있어 外感表證, 氣血阻滯의 病證에 應用되며, 苦味는 能泄, 能燥, 能堅하는 作用이 있어 濕熱, 氣逆, 秘結, 痿軟의 病證에 應用되며, 甘味는 能補, 能和, 能緩하는 作用이 있어 營養補給 緩和 解毒에 應用한다.

麻黃湯의 主治證을 文獻적으로 考察하여 보면 《世醫得效方》<sup>(1)</sup>, 《奇效良方》<sup>(3)</sup>에서는 “治傷風喘急 坐臥不安 痰涎壅塞 涕唾稠粘 手足冷痺”라 하였다. 《太平惠民和劑局方》<sup>(2)</sup>, 《醫方類聚》<sup>(8)</sup>에서는 “治丈夫婦人 久近肺氣 咳嗽喘急 上衝 坐臥不安 痰涎壅塞 欬唾稠粘 脚手冷痺 心脇疼脹 兼治傷風咳嗽 膈上不快”라 하였다. 《東醫寶鑑》<sup>(4)</sup>, 《東醫肺系內科學》<sup>(6)</sup>, 《東醫臨床方劑學》<sup>(7)</sup>에서는 “治傷風 喘急 痰涎涕唾稠粘”이라 하였다. 《東醫臨床內科》<sup>(5)</sup>에서는 “治風寒喘 粘稠鼻汁 發汗症狀”이라 하였다. 《備急千金要方》<sup>(9)</sup>, 《聖濟總錄》<sup>(11)</sup>, 《醫方類聚》<sup>(8)</sup>에서는 “主上氣嗽方”이라 하였다.

《太平聖惠方》<sup>(10)</sup>에서는 “治氣極 肺虛 上氣喘急 坐臥不得 治卒上氣 喘急 氣奔欲絕 咳嗽

上氣”라 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文獻적으로 考察한 바에 따르면 麻黃散은 主로 溫中散寒한 藥物로 構成되어 있으며 性이 溫한 藥이면서 味가 辛, 苦, 甘한 藥으로 構成되어, 風寒에 傷하여 發하는 咳嗽, 喘急, 痰涎, 鼻塞, 涕唾 等の 傷風寒 喘急症을 다스린다. 그러므로 本處方은 虛·實喘 中에서 惡寒發熱과 같은 表證이 있는 風寒實喘을 治療하는데 應用되는 處方으로 볼 수 있다.

#### IV. 結 論

風寒喘에 應用되고 있는 麻黃散의 構成藥物 및 效能, 各 醫書에 따른 構成藥物 差異 및 藥物 用量變化, 文獻別 主治證을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麻黃散은 《世醫得效方》<sup>(1)</sup>에 처음 收錄되었고 構成藥物은 麻黃, 桂皮, 款冬花, 訶子皮, 甘草, 杏仁, 細茶이다.
2. 麻黃散의 構成藥物의 共通된 效能은 除風散寒하며 清肺平喘 潤肺消痰하는 作用이 있다.
3. 麻黃散의 構成藥物의 共通된 性은 溫이고 味는 辛, 苦, 甘味가 主種을 이루었다.
4. 《醫方類聚》<sup>(8)</sup>, 《備急千金要方》<sup>(9)</sup>, 《太平聖惠方》<sup>(10)</sup>, 《聖濟總錄》<sup>(11)</sup> 등에 收錄된 麻黃散은 風寒喘을 다스리는 麻黃散과는 同名異方으로 一般的인 喘急症을 다스린다고 생각되어진다.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麻黃散은 呼吸器疾患 治療의 3大治法인 利氣, 祛痰, 潤肺의 治法中 利氣 祛痰의 治法에 依據 風寒喘에 應用된 것으로 思料된다.

## 參考文獻

1. 危亦林：世醫得效方 卷五，서울，驪江出版社，中國醫學大系 14 卷，p.746[184]，1987.
2. 陳師文：太平惠民和劑局方 卷四，臺北，旋風出版社，p.3，1974.
3. 方賢：奇效良方，香港，商務印書館，p.633，1977.
4. 許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pp.474~475，1981.
5. 姜允皓：東醫臨床內科，서울，書苑堂，pp.159~163，1990.
6. 李珣九：東醫肺系內科學，서울，民瑞出版社，pp.90~95，p.266，1984.
7. 尹吉榮：東醫臨床方劑學，서울，明寶出版社，p.116，1985.
8. 世宗大王命：醫方類聚 第115~116卷，서울，驪江出版社，p.414，441，443，488，1991.
9. 孫思邈：備急千金要方，臺北，自由出版社，p.326，1965.
10. 太宗命：太平聖惠方，서울，翰成社，p.742，1264，1266，1413，1979.
11. 吳錫璜：聖濟總錄 卷十七，上海，十頃堂書局，p.8.
12. 李木延：醫學入門 外集卷二，서울，大星文化社，p.162，1984.
13. 姜命吉：濟衆新編，서울，杏林書院，p.167，1982.
14.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서울，成輔社，p.202，457，529，1980.
15.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서울，成輔社，p.301，1980.
16. 金完熙等：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p.249，1985.
17. 辛民教：臨床本草學，서울，永林出版社，pp.175~176，261~262，p.285，pp.516~517，p.564，pp.646~647，1988.
18. 李尙仁：本草學，서울，圖書出版 壽書院，pp.58~60，61~63，176~177，189~190，335~336，338~339，1981.
19. 陸昌洙：現代本草學，서울，高文社，pp.123~124，p.200，pp.208~209，p.308，310，1972.
20. 陸昌洙：漢藥의 藥理 成分 臨床應用，서울，癸丑文化社，pp.306~308，533~536，695~699，781~783，881~884，1982.
21. 辛民教等：本草學，서울，永林社，pp.121~123，336~337，478~479，482~483，540~541，611~612，1991.
22. 辛民教等：國譯 鄉藥集成方(下)，서울，永林社，pp.1888~1889，1989.
23. 申佶求：申氏本草學，서울，壽文社，pp.16~23，188~189，211~215，471~473，479~481，1973.
24. 辛民教等：國譯 鄉藥大辭典，서울，永林社，pp.402~405，1990.
25. 謝觀：東洋醫學大辭典，서울，高文社，pp.718~719，1970.
26.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醫藥學篇：醫方新鑑，서울，驪江出版社，p.116，1988.
27. 吳克潛：古今醫方集成(三) 서울，韓成社，pp.1615~1616，1980.
28. 丁奎萬：東醫小兒科學，서울，杏林出版社，p.401~403，1985.
29. 金定濟：診療要鑑 卷上，서울，大星文化社，p.594，1983.